

도리스 레싱의 「19호실로」: “지성의 실패”를 통해 본 여성에 대한 부정의

김 금 주
단독 / 연세대학교

[국문초록]

이 논문은 도리스 레싱의 「19호실로」를 통해 사회 제도, 문화적 양식과 사회적 관계들이 여성의 삶을 제약하고 여성을 불평등한 지위로 내모는 역할에 기여 해왔음을 살펴본다. 근대 윤리학과 정치이론은 합리적 행위 주체가 지녀야 할 불편부당한 이성을 강조하면서 여성을 육체와 감정을 초월할 수 있는 이성적 시민의 모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민의 자격에서 배제했다. 또한 근대의 시민 개념에 의하면 시민으로서 개인은 상호의존적이라기보다 합리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본위적인 독립적 개인으로 정의되었다. 따라서 취약성, 의존성, 상호의존성이나 돌봄은 이상적 시민의 속성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이처럼 시민권 개념이 독립에 정초하고 정치적 문화가 젠더의 차이를 강화하면서 새롭게 젠더화된 의존개념이 부상했다. 그리고 의존은 점차 여성화되고 낙인찍히고, 더 나아가 돌보는 사람에 대한 경멸과 돌봄 노동에 대한 멸시가 부추겨 졌다. 그리하여 여성은 의존을 체현하는 존재가 되어 종속적인 지위로 폄하되었다. 이렇게 여성을 의존자로서 폄하하는 근대의 윤리학과 정치 이론은 보다 해방적인 사회적 관계를 은폐하고 여성의 억압을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해왔다.

「19호실로」는 “지성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라는 화자의 말로 시작한다. 「19호실로」에서 지성은 여성의 종속적 지위를 정당화한 이성과 합리성에 토대를 둔 근대

의 윤리적, 정치적 이론과 관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이론은 여성에 대한 부정의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실패로 볼 수 있다. 「19호실로」의 화자는 이 실패를 “지성의 실패”로 지칭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레싱의 「19호실로」를 통해 근대 시민사회의 이상에 바탕을 둔 제도, 문화적 양식과 사회적 관계들이 구조적이고 제도화된 여성의 억압과 불평등을 야기하고, 여성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과 기회를 박탈하는 부정의를 초래한다는 점을 논의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의를 극복하고 변화를 위한 조직적 행동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정치적 책임이 필요하고, 사회 과정의 참여자로서 시민은 책임을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한다.

주제어: 도리스 레싱, 「19호실로」, 지성의 실패, 여성에 대한 부정의, 정치적 책임

I

도리스 레싱(Doris Lessing)의 단편 「19호실로」 (“To Room Nineteen,” 1963)에서는 여주인공 수전 롤링스(Susan Rawlings)가 기혼여성으로서 억압과 분노를 겪으며 결국 자살에 이르는 과정이 재현되고 있다. 본 논문은 작품의 서두에서 언급된 “지성의 실패”(352)를 단초로 수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주요한 원인에 지성과 관련된 여성에 대한 구조적, 제도적 부정의가 있다는 점을 살펴본다. 이 과정에서 필자는 마리언 영(Iris Marion Young)의 정의 이론을 수용하여 분배에 중점을 둔 정의 이론이 포착하지 못한 사회적 관계와 역량 증진의 수단이나 제도적 조건과 관련된 정의 이론의 관점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의를 고찰하고자 한다. 아이리스 영은 일반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존 롤스(John Rawls)의 정의 개념인 정태적인 분배 지향적 정의 이론의 한계를 비판하면서 정의 이론의 초점이 지배와 억압으로 이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Justice 3). 즉, 영에 따르면 정의는 개인적 역량과 공동의 의사소통 및 협력이 발전되

고 행사되는데 필요한 제도적 조건들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개인의 역량을 박탈하는 제약 형식으로서 억압과 지배를 문제 삼아야 하는 것이다. 억압과 지배라는 제약은 분배의 논리로 포착하기 어려운 개인의 역량을 박탈하는 의사결정의 절차, 노동 분업, 문화에 제약을 가하기 때문이다(Justice 39). 그리하여 영은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과정의 함수”가 포함된 정의 담론, 즉 “행동과 행동의 결정을 포함하고 더 나아가 역량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수단들의 제공도 포함하는 보다 넓은 맥락의 정의 담론”을 제시한다(16). 영은 특히 억압이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주요 제도들 속에서 체계적으로 재생산 된다”는 측면에 주목하여 구조적 억압이 보통의 일상생활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극심한 부정의에 주목한다(41). 레싱의 「19호실로」에서는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구조적 억압으로 여성이 겪게 되는 부정의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드러나 있으며, 본고는 「19호실로」를 통해 이러한 여성에 대한 부정의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19호실로」는 다양한 주제로 연구되어 왔다. 유제분과 홍승현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체제에 의한 여성의 이데올로기적, 물질적 억압을 중심으로 고찰하면서 여성의 활동이 가사, 돌봄 노동에만 한정됨으로써 여성이 겪는 소외와 정체성의 상실에 대해 분석했다. 강영돈은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며 양성적 대립과 대화의 붕괴로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주목했고, 김초연은 여성 성장소설의 관점에서 전형적인 성장소설의 주인공이 자아에 대한 사유를 부분적으로 억누르며 성장을 이루는 것에 반해, 수전과 같은 여주인공은 사회의 실상에 대해 각성하는 동시에 자아에 대해 인식하며,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의해 아내/어머니로 호명되기를 거부하는 자유로의 향해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성장의 의미를 찾기도 했다. 한편 린다 헬리스카이(Linda Halisky), 버지니아 헌터(Virgina Hunter), 최선영은 수전의 감정의 억압과 광기의 표출과 관련하여 서구의 근대적 지성과 합리성의 강조가 여성에게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면을 비이성적인 것으로서 억압할 것을 강요하는 측면을 주목했고, 케빈 브라운(Kevin Brown)은 「19호실로」가 지성의 실패가 아니라 상상력의 실패, 즉 수전이 행복한 아내 혹은 자살 이외에 미래를 위해 다른 이

야기를 상상할 수 없었다는 점을 고찰했다. 또한 박선화는 수전이 거주하는 장소가 개인의 정서나 욕망과 얽혀 있다는 관점에서 수전이 장소와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삶에 대한 상실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19호실로」의 선행 연구들은 이처럼 여성 억압의 주요한 제도적 원인으로 가부장제와 자본주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또한 서구의 근대적 지성과 합리성에 대한 강조가 여성을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억압하고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에서 비판되고 있는 근대적 지성과 합리성은 주로 감정과 대립되는 차원에서 여성 억압적인 것으로 해석되어 왔는데, 「19호실로」에서 “지성”의 강조는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면을 억압하는 측면 뿐 아니라 여성을 종속적인 위치로 억압하는 주요한 기제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러한 지성은 근대 시민사회를 정초한 도덕적 이상의 토대가 되었고, 근대 시민사회 형성에 기여한 정치, 윤리학의 도덕적 이상은 여성의 억압을 강화하는 이데올로기적 역할을 하면서 이 억압을 영속화하는데 기여해(Young, *Justice* 96-121)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대 정치, 윤리학의 도덕적 이상과 지성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대 윤리학은 모든 합리적 행위 주체가 똑 같은 보편적 관점을 채택할 때에만 이기주의의 피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편부당성(impartiality)을 특징으로 하는 도덕적 이성의 관점을 강조했다(Young, “Justice” 99-100). 이러한 도덕적 이성은 국가라는 공적 영역에 적용되어 국가는 불편부당성을 도덕적 이상으로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장 자크 루소(Jean Jacques Rousseau)의 정치 철학을 계승하여 국가의 토대가 되는 시민은 개별적 욕구와 감성을 배제한 보편적이고 불편부당한 이성의 관점을 표현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Young, *Justice* 107-108). 따라서 이성적 시민의 모델에 맞지 않는 개인과 집단은 시민의 자격에서 배제되었는데, 여성은 감정과 욕구를 표현하며 육체를 돌보는 존재라는 이유로 시민의 자격에서 배제되었다(109). 이처럼 근대의 보편적 시민은 육체와 감정이 배제된 “남성의 이미지”로 만들어지고 (Pateman, *Disorder* 14) 남성적 개인에 근거를 두면서(Phillips 57) 여성은 공적영역에서 교묘히 배제당하고 억압받게 되었다.

그리고 본고에서 좀 더 주목할 부분인 근대 보편적 시민이라는 개념의 또 다른 의미는 정치에 참여하고 공공의 일에 관여하며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개인이라는 이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Lynch 79), 개별 시민들을 상호의존적이라기보다 합리적이고 자율적이며 자기본위적인 독립적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Held 13), 취약성, 의존성, 상호의존성이나 돌봄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상적 시민의 속성으로 여기지 않았다(Kittay 83-100). 근대의 정치 철학에서 개인의 독립성에 대한 강조는 시민 개념 뿐 아니라 근대 산업사회와 산업자본주의와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었다.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근대 산업사회에 산업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독립’이 정치, 경제적 담론의 핵심 단어로 부상했고, 18세기와 19세기의 시민권 개념은 독립에 정초했으며 의존은 시민권에 대한 안티테제로 간주되었고, 정치적 문화가 젠더의 차이를 강화하면서 새롭게 젠더화된 의존 개념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Fortunes 90). 그리고 이 시기에 의존과 비의존의 의미는 경제적 영역에서 더욱 극적인 변화를 겪었다. 백인 남성 노동자들은 시민권과 선거권을 요구하면서 자신이 독립적임을 주장했고, 더 나아가 그들은 임금노동의 의미에 내포된 ‘임금노예’와 같은 의존적 의미를 지우고 임금노동을 재해석하여 그것을 남자다운 비의존성의 새로운 형식으로 내세웠다. 그리하여 의존은 여성에게는 괜찮은 상태이지만 남성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고, 임금 노동에서 배제된 여성은 의존을 체현하는 존재가 되었다(Fraser, Fortunes 90-91). 따라서 의존은 남성우월주의적인 어법을 통해 여성적 의미로 재구성되면서 점차 여성화되고 낙인찍혀 수치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돌보는 사람에 대한 경멸을 심화시키고 돌봄노동에 대한 멸시를 부추기게 되었다(Fraser, Fortunes 87; 102). 그리고 의존대 비의존이라는 이분법과 임금노동의 헤게모니 장악에 따른 결과로 여성의 무임금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은 완전히 평가절하 되었다(Fraser, Fortunes 109). 하지만 의존을 폄하하는 담론을 비판하는 이바 키테이(Eva Kittay)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에 대한 개념은 “허구”에 불과한 것이고(xii), 인간은 근본적으로 상호의존적이기 때문에 의존이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한다(34). 모든 개인은 영유아기 시절부터 누군가에 의존해야 하며 삶에서 근원적으로 타인과 상호의존관계를 맺고 있으며, 마

치 우리가 비의존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관계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Held 13-4). 따라서 여성을 의존자로서 폄하하는 근대의 정치, 경제 철학의 이상은 “보다 해방적인 사회관계의 가능성을 은폐함”으로써 여성을 의존적 존재로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관계를 재생산”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하면서 여성의 억압을 공고히 해왔다(Young, *Justice* 112).

이처럼 근대 자유주의 정치, 경제 철학은 여성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로 작용하면서 일상적 삶에서 구조적인 여성 억압에 기여했는데, 이러한 구조적 억압은 “힘 있는 개인에 의해 강압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간접적이고 포착하기 어려운 형태”로 나타난다. 즉 구조적 억압은 우리의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개인들의 행위가 결합하여 일어나고(Young, *Responsibility* 55), 많은 개인들의 행동을 통해 억압이 유지되고 재생산되어 그들 자신이 억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할 정도로 일상에 뿌리박혀 있는 ‘부정의’로 나타난다(Young, *Justice* 41-2). 「19호실로」의 여주인공 수전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억압이 이야기하는 극심한 부정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전의 경험을 “지성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로 치칭함으로써 「19호실로」는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 근대 정치, 경제의 이상이 여성을 공적 영역에서 배제하고 여성에 대한 부정을 생산해 왔다는 점에서 실패한 이상이라는 점을 주지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레싱의 「19호실로」를 통해 도덕적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근대 시민사회의 이상과 그러한 이상에 바탕을 둔 제도, 문화적 양식과 사회적 관계들이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부정을 초래한다는 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을 극복하고 여성의 역량이 증진될 수 있는 더 나은 사회적 관계를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레싱의 「19호실로」는 “지성의 실패에 관한 이야기”이며, “롤링스 부부의 결혼은 지성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352)라는 말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지성의 실패”는 작품을 분석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 많은 비평가들은 “지성”을 감정과 열정에 대립되는 합리적 이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성을 “강렬한 감정을 부인하게 만드는 자의식적 합리화의 형태”(Hunter 94)이거나 “열정을 추방하는” 분별 있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으로 설명한다(Halisky 48). 그리고 “지성이 감정과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부적절”해지고(Budhos 2), 지성에 바탕을 둔 합리적 삶의 이면에 자연스러운 감정이 존재할 자리가 없어지고 감정을 왜곡시키는 지성의 함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한다(최선령 177). 이처럼 「19호실로」에서 지성은 열정이나 감정과 반대되는 합리적 이성이며, 동시에 수전과 매슈(Matthew)가 “실수 없이 옳은 길만 선택하는 감각”(353)이며 “대중적인 지혜”(353)로서 당대의 지배적 담론을 실수 없이 수용하는 “실용적인 지성”(354)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지성”은 개인의 차원에서 합리적이고 분별력 있는 이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당대의 지배 담론의 토대를 형성해온 합리적 이성, 즉 근대 시민사회의 기획에 기초가 되는 합리적인 이성을 지칭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지성의 실패”는 합리적 이성에 기반을 둔 근대 시민사회와 더불어 강화된 불편부당한 이성적 관점의 실패로 의미가 확장된다.

「19호실로」에서 수전과 매슈가 “실수 없이 옳은 길만 선택하는 감각”(353)에 따라 “교육받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갖춘 두 사람이 서로 행복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자 자발적으로 서로 결합한”(355) 행위는 그들이 최상의 효용과 만족을 얻고자 선택한 것이다. 그들의 이러한 선택은 20세기 중반 무렵 “올바른 행동”을 위한 규범이론의 토대가 된 “칸트(Kant)와 공리주의적” 전통에 따라 “합리적 계산을 한 것”이며 “합리적 선택을 위해 이성에 의지한 것”으로 해석된다(Held 58). 결국 수전과 매슈가 서로 행복하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실수 없이 옳은 길”이란 결혼의 관점에서 두 사람이 당대의 지배적인 담론을 따른 것이 된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의 결과는 서로

행복하기보다는 수전이 삶을 끝내야 할 만큼의 극심한 억압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롤링스 부부의 합리적 선택의 비극적 결말은 그들 개인의 지성의 실패이자 그들의 선택을 이끈 당대 지배담론의 합리성의 실패로 규정될 수 있다. 이처럼 롤링스 부부의 결혼이 비극적 결말에 이르게 되는 실패의 과정을 분석하려면 그들이 확신한 올바른 지성적 판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주목하고 이 과정에서 그들의 지성적 판단을 추동하는 당대의 지배 담론이 정당화하는 일상적으로 제도화된 구조적 억압을 밝힐 필요가 있다.

보수가 좋은 직업을 가졌고 독립심이 강했던 수전은 “현명한 안목”으로 배우자를 선택하여 결혼을 하게 되는데(352), 친구들이 판단한 이러한 “현명한 안목”에는 수전이 여성과 결혼에 관한 당대의 지배담론을 잘 수용하는 측면이 포함된다. 수전은 결혼 전 광고 일을 하며 독립적인 삶을 누렸지만 결혼에 관한 대중적 지혜를 수용하여 “누구라도 선택할 수만 있으면 선택하고 싶은 삶”(353)이라 판단하고 의심 없이 결혼과 출산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 수전이 독립심이 강한 여성이라는 점은 신혼집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데, 수전과 매슈는 서로 각자 살던 아파트 중 한 곳을 신혼집으로 선택하는 것을 자신의 아파트를 선택받지 못한 사람의 “개성의 굴복”(353)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두 사람은 새로운 아파트를 마련한다. 그리고 수전은 결혼과 출산 후 일자리를 구하려면 얼마든 구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독립성을 위해 다시 직장을 구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고 자신의 개성을 잃지 않고자 아이들이 자란 뒤 일정한 나이에 이르면 “다시 일을 시작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직장 구하는 일을 미래로 미룬다(355). 그러나 이러한 판단과 선택은 예상치 못한 결과로 나타난다. 결혼 후 12년이 지난 상황에서 어린 쌍둥이가 학교에 가게 되면 “자기만의 삶이 있는 여성으로서 서서히 해방될 준비”(358)를 하고 “10년만 더 지나면 자기만의 삶이 있는 여성”(358)으로 되돌아갈 것이라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판단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즉, “자신만의 삶을 살고 스스로 생계를 꾸려가던” 독립적인 여성이었던 수전이 이제 “바깥 세상에 대한 관심사와 수입을 남편에게 의존하게 되었을 때” 점차 “분노와 박탈감”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다(355). 뿐만 아니라 수전은 막내 쌍둥이가 학교에 들어

가자 “자신이 되는 법을 배워야 한다”(360)고 생각하지만 한순간도 자신만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공허함과 초조함”에 사로잡힌 채, 점점 “분노가 그녀의 마음을 적의로 물들이고”(363) 자신의 집에서 마치 “징역형”(364)을 선고받은 것처럼 자유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수전의 합리적 선택은 자신을 점점 더 자신만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실패로 귀결되는 듯하다.

독립심이 강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추구했던 수전이 결혼에 대한 대중적 지혜를 쉽게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브라운의 지적처럼 수전이 결혼과 가족에 대한 당대의 지배적 서사 이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생각할 수 없었다는 점, 즉 그녀가 다른 이야기를 상상하는데 실패한 탓일 수 있다(9-11). 이처럼 수전이 미래에 대해 다른 이야기를 상상하기 힘든 이유는 그녀가 몸담고 있는 사회가 수전에게 당대의 지배 서사와 다른 이야기를 상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당대의 지배 서사를 수용하는 것만이 “올바른 선택이라는 환상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브라운의 주장은 타당하다(11). 누군가 지배 서사에 대항하여 미래의 전망을 상상하려면 그러한 상상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하지만, 수전이 살았던 20세기 중반 영국사회는 기혼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범위는 매우 제한되어 있어서 수전과 같은 여성이 자유롭게 일할 수 있는 미래를 상상하는 일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1950, 60년대 서구의 여성들은 대체로 행복한 가정주부 이미지와 베티 프리단(Betty Friedan)이 ‘여성성의 신화(the feminine mystique)’²⁾라고 부른 이데올로기에 포위되어 있었고(The Care 24), 당시 영국에는 전후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여성은 결혼과 모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는 신념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다(Davis 146). 따라서 1950년대와 그 이후의 시기에 “여성성은 가정적인 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여겨졌고, “당시 이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은 핵가족 안에서 두, 세, 네 명의 자녀를 둔 가장인 남편에게 의존하는 전업주부”였다(Davis 177). 수전은 이러한 여성에 관한 당대의 문화적 담론을 내면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과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두고 돌봄과 가사노동에 전념하기로 한 자신의 선택이 이성적이고 분별 있는 선택이었다고 자부하며 스스로 그 선택의 정당성을 계속 합리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성취를 가정 속에 한정시키는 당대의 문화적 담론은 아내인 여성을 남편에 의존하도록 하고 종속시키는 결과를 낳았는데, 이러한 여성의 종속을 정당화하고 계속 유지시킨 주요한 지배 서사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근대 윤리학과 정치이론이 내세운 도덕적 이성을 지닌 합리적 행위 주체로서의 시민의 모델과 이 모델에 기초한 성차에 따른 영역분리의 담론이었다. 즉 근대 시민사회는 비이성적으로 간주된 여성을 시민의 지위에서 배제했고, 산업사회로 접어들어 자본주의가 심화되자 성차에 따른 영역분리는 더욱 공고해졌다. 19세기 자유 경쟁적 자본주의 사회는 가족 내 사회 재생산을 여성에게 전담하는 ‘분리된 영역’이라는 이상형을 정교화 했고, 20세기에 접어들어 국가 관리의 자본주의는 분리된 영역 모델을 더 현대화된 형태로 수정하여 ‘가족임금’이라는 이상형을 만들었다(Fraser, “Contradictions” 104). 그리하여 빅토리아 시기의 여성이 물적 안정과 도덕적 위세를 누리는 대가로 법적 약자로서 제도화된 종속을 감내해야 했듯이(106-7), 20세기에도 가족과 노동에 대해 남성중심적 합의를 제도화함으로써 젠더 위계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어 결국 정치적 논쟁에서 밀려나(111) 여성의 억압과 종속은 구조화되고 제도화된 채 은폐 되었다.

『19호실로』에서 이러한 구조화된 억압과 종속에 처하게 된 수전은 자신의 삶 속에 갇힌 것처럼 느끼게 된다(364; 366). 그리하여 수전은 다시 공적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자신만의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를 구하는 일도 생각해보지만 기혼 여성인 그녀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한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이미 일을 그만 둔지 10년이 지나고 40대에 이른 수전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은 “겉봉에 주소를 쓰는 일”과 “여론 조사원”(370)과 같은 단순한 시간제 일로서 결혼 전 그녀가 발휘했던 역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당시 기혼 여성들은 전일제 일자리를 거의 구할 수 없었으며 교육받은 여성들도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과 유사한 일자리를 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기 때문이다(Davis 156). 이처럼 겉봉에 주소 쓰기와 같은 단순한 시간제 일은 버지니아 울프가 『자기만의 방』(*A Room of One's Own*, 1929)에서 언급했던 1918년 이전에 “여성에게 열려있는 주된 일거리”(37) 가운데 하나로서 여성의 재능을 소진시키는 제한된 일자리의 대표적 예가 된다. 여성들은 재생산 노동

을 과도하게 할당 받음으로써 생산 노동에 온전히 참여할 기회와 능력이 제한당하고 장래성 없는 일자리만 얻게 되는 궁지에 처하는 것이다(Arruzza et al. 28). 이처럼 여성들의 공적 노동을 시간제 일에만 한정시키는 사회 체제는 수전처럼 재능 있는 여성들이 “자기 역량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수단을 박탈하거나 지배하는” “구조적 부정의”(Young, *Responsibility* 52)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미 『자기만의 방』에서 울프는 여성을 제약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부정의가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능이 “소멸되어 가고 있으며 그것과 함께, 나 자신, 내 영혼도 죽어가고 있다는 생각”(38)으로 이끌어 그들이 “두려움과 쓰라림이라는 독약”(37)에 잠식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킨다. 이러한 구조적 부정의는 20세기 중반에도 여전히 지속되어서, 「19호실로」의 수전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보려는 시간마저 가질 수 없어(362), “한순간도 자유롭지 않다”(363)고 느끼고 그녀의 영혼은 질식하고 분노와 절망에 사로잡힌다.

가족임금 체제 내에서 전업 주부로서 가정에 구속되었다고 느끼는 수전은 자신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위해 혼자 조용히 있을 장소를 구하려 방을 빌리려고 하지만, 일주일에 3, 4파운드의 비용조차 남편 매슈에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서(303), 그녀는 경제적으로 남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은 수전에게 자신이 남편 매슈와 부부로서 동등한 지위가 아니라 매슈에게 종속되었다는 “분노와 박탈감”(355)을 주게 된다. 그리고 비록 매슈는 수전을 의존자로서 폄하하지는 않지만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수전이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세상의 “모험과 기쁨,” “야성과 아름다움”(357)을 자유롭게 누리고, 수전에게 자신의 외도도 스스럼없이 고백하는 당당함을 보임으로써 수전에게 자신이 남편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한다. 수전은 이러한 매슈의 무심한 태도를 “고백도 아닌 것”으로 여기지만(356), “때때로 분한 마음을 느끼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 생각하며 “현명한 사람들”의 결혼생활 방식을 따르기로 생각한다(357).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지위를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집안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하는 수전이 남편에게 의존만 하는 존재로 볼 수 있을까? 사실 남편인 매슈의 노동은 집안에서 일하는 수전의 노동 있기 때문에 가

능한 것이지만 임금노동이 헤게모니를 장악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남성인 매슈의 의존은 가시화되지 않는다. 미즈(Maria Mies)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경제의 빙산 모델 (Iceberg Model of the Capitalist-Patriarchal Economy)’에서 주장한 것처럼 빙산의 수면 위로 떠올라 있어 확인되는 공식부문이라고도 불리는 자본과 임금노동과 같은 가시적 경제는 빙산의 수면 아래에 잠겨있어 우리가 경제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노동계약으로 보호받지도 못하는 비공식부문의 가사노동을 포함하는 비가시적 경제에 의존해 있다(176). 자본주의 경제 체제에서 가시화된 공식 부문은 마치 자족적이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사회적 유대를 만들고 유지시키는 공급활동, 돌봄 제공 및 상호작용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Fraser, “Contradictions” 101). 이처럼 비가시적 경제에 속하는 수전의 돌봄과 가사노동이 가시화되지 않고 인정받지도 못함으로써 남편인 매슈가 그녀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도 은폐되고 만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일반적인 전제와는 달리 수전은 가족 구성원들과 자신이 사는 집마저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강하게 느낀다. 수전은 담보대출이 아직 끝나지 않은 자신의 집과 정원, 남편과 네 아이들, 피출부인 파크스 부인(Mrs Parkes), “이 모두가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으며”(364), “그녀의 영혼이 이 집에 살아 있어야만, 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물속의 식물처럼 자랄 수 있다”고 느낀다(373). 하지만 수전은 자신에게 의존하는 존재들의 무게만 강하게 느낄 뿐, 자신이 그들의 의존에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생각한다(364). 따라서 수전은 남편인 매슈가 자신의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명하지 못한다. 남편 매슈의 “자유, 권력, 지위, 자기실현이 가능한 것”은 여성으로서 수전이 남성인 매슈를 위해 “일하기 때문”이지만(Young, *Justice* 50), 수전은 캐롤 페이트먼(Carole Pateman)이 주장하듯 “가사노동은 일이 아니며, 노동은 공적 작업장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남편은 “노동자”이며 “부양자”(Sexual Contract 136)라는 문화적 가치를 내면화함으로써 매슈도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으므로 서로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수전은 결혼제도를 통해 여성의 노동 착취를 구조화하는 “제도적 문화적 가치 유형의 결과,”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온전한 파트너로서 지위를 부정하는”

“제도화된 사회적 종속 관계”에 처하게 되는 심각한 부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Fraser, “Rethinking Recognition” 135).

이처럼 수전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아내이자 엄마가 되어” “네 아이와 남편이 그녀의 피부를 고통스럽게 짓누르고 뇌를 손으로 눌러대는 것”(364)같은 출구 없는 돌봄 노동 속에 갇히고 그녀의 “영혼이 아이들의 것이 되어버린”(359) 채 죽어가는 것은 수전 자신이 결혼에 대해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한 측면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수전이 다른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을 억압하는 제도화된 사회 구조와 관련된 것이다. 수전이 경험하는 이러한 구조적 억압은 “당연시 되는 규범들, 습속, 상징들 속에, 제도적 규칙들의 근저에 놓여 있는 이런저런 가정과 그 제도적 규칙을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준수함으로써 야기된 결과들”(Young, *Justice* 41)에서 기인한다. 이처럼 일상적 삶에 내재된 구조적 억압 속에서 결혼한 여성이 아내나 어머니 역할을 하게 되면서 겪는 경험과 고통은 자연스럽게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수전은 자신이 느끼는 분노와 적의의 감정을 당대의 문화적 가치에 역행하는 “현명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남편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한다(360-61). 따라서 수전은 매순간 이런 저런 일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해 전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지 못하고 계속 망설이며 주저한다(365). 이와 같이 수전처럼 억압적 상황에 대해 표현하지 못하고 자신에게 “지정된 자리를 지키며 상대방을 보완하는 역할만 하는 한, 둘 사이의 잠재적 갈등은 은폐된 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Fraser, “Contradictions” 106). 따라서 수전은 마침내 용기를 내어 남편 매슈에게 자신이 “자유롭지 못하다”(365)고 말하며 자신의 내면의 갈등을 털어놓지만 매슈는 수전의 고통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 매슈는 그녀의 상황이 억압적이라기보다 자신도 겪는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단정 지을 뿐이다. 즉 매슈는 자신도 “이런저런 일을 받드시 해야”하고 “일정한 시간에 집에 돌아와야 한다”는 점에서 가정에 구속되어 자유롭지 못하므로 자유는 “죽기 전에 불가능”하다고 말한다(365). 매슈는 수전의 말을 남성 중심적 지배 담론의 논리를 통해 받아들이므로 그녀가 왜 고통을 받는지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남녀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생계부양자와 전업주부로 일하면서

가정에 구속되어 있으므로 두 사람 모두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매슈의 논리인 것이고, 매슈는 이러한 사회, 문화적 담론이 여성에게 억압적이고 위계의 논리가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수전이 말하는 자유롭지 못함은 매슈가 주장한 것처럼 남편과 아버지로서 자신의 일정한 시간을 가족을 위해 할애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과 맥락이 다르다. 수전이 뜻하는 자유는 이미 20세기 초반의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한 것처럼 “자신만의 개인성을 독자적으로 추구”하며(Marsden and Gawthorpe, “Bondwomen” 1-2),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고 발휘”(Young, *Justice* 37)할 수 있는 자유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동등한 시민으로서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남성들과 다른 것은 “동등한 존경과 사회적 존경을 획득하기 위한 동등한 기회”(Fraser, “Social Justice” 36)를 통해 그들과 “동등한 자격으로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218)함으로써 가능해 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수전은 온몸으로 억압을 느끼고 분노하는데 반해, 젠더화된 구조적 억압의 상태에 있지 않은 매슈는 자신도 자유롭지 않고 이런저런 일에 얽매어 있다고 말하지만 수전처럼 “갹갹함을 느끼지 않”고 “초조하게 안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365). 뿐만 아니라 자유를 억압당한 수전이 자신의 인생을 사막과 같다고 느끼지만(357), 매슈는 수전의 노동에 의지한 채 자신만의 “모험과 기쁨”(357)을 추구하고 가정보다는 일터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자신의 진정한 삶을 찾기도 한다(373). 매슈는 수전의 노동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그에게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자유롭게 참여하여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수전은 여성 억압적이고 위계적인 사회의 구조적 부정의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느끼지만 그러한 상황을 바꾸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수전은 자신의 경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매슈가 자신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자신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으며 자신이 “비이성적인 사람”(365)일 것이고, 매슈도 마침내 자신을 “비이성적이라고 진단”(371)했다고 자신에게 책임을 돌리며 이 상황을 견뎌내야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혼에

관한 당대의 지배담론에 따라 옳은 길, 누구라도 선택할 수만 있다면 선택하고 싶은 삶을 살고 있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독신 여성인 타운센드 양(Miss Townsend)이 보기에 “이상적인 삶”(369)을 살고 있는 수전이 그런 삶을 전혀 원하지 않고 아이와 남편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대의 문화적 기준에 따르면 비이성적인 태도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전은 자신의 태도가 비이성적이어서 문제적이라 생각하고 이 삶을 견뎌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므로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찾지 못한다.

그러나 수전은 이처럼 힘겨운 삶을 견뎌내려 하지만, 분노와 좌절감을 억제하지 못한 채 정원에서 “적”(360-62)과 “악마”(363, 367-68, 372, 380-81, 386)를 보게 된다. 수전이 정원에서 목격한 이 적 혹은 악마는 헨터의 주장처럼 그녀의 욕망과 공포가 내면으로 투사되었다가 다시 외면화되어 악마로 표현된 것으로 보일 수 있다(102). 그러나 수전이 정원에서 목격하는 적이나 악마는 단지 그녀의 욕망과 공포가 외면화 된 차원을 넘어 들뢰즈(Gilles Deleuze)가 주장한 것처럼 그녀에게 “응시하라고 강요하는 인상, 해석하라고 강요하는 우연한 마주침, 사유하라고 강요하는 표현”(PS 95)으로서 진실을 찾도록 “폭력을 행사하는 기호”(PS 16)로 작용한다. 따라서 이 기호는 수전이 자신의 합리적 지성으로 파악하지 못한 “참된 것을 찾도록 강요하는 어떤 것과 마주치게 함”(Deleuze, PS 16)으로써 그녀에게 자신이 처한 진실에 대해 생각하도록 촉구하는 것이다. 이처럼 수전이 마주치는 혼란된 기호는 그녀가 처한 현실에 대해 진실을 밝히기를 촉구하지만 수전은 그것이 “위협”한 것, “집안까지 들어와서 자신 속으로 들어와 자신을 차지하려는 한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그것에 대해 더 깊이 있는 해석을 할 수 없게 된다(368). 이러한 상황에서 수전은 자신이 처한 진실과 마주하기보다는 회피하는 쪽을 선택한다. 그녀는 아무도 모르는 곳에 혼자 조용히 앉아 있는 장소를 꿈꾸고(368), 그런 장소로 호텔 방을 구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신의 현실이 가하는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공허함을 회피함으로써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그리고 수전은 자신의 방이 노출되어 자유를 방해받자, 증오의 말을 내뱉으며 찢어진 날개를 퍼덕이며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혀 고통 받는 나방처럼 사납게 몰아대는 악마

의 힘에 압도당한다(380). 결국 수전은 이러한 악마와 마주하며 진실을 찾는 고통을 선택하는 대신 악마로부터 자유로운 어두운 죽음의 세계를 선택한다(386). 수전은 들뢰즈가 주장한 것처럼 참된 것을 찾도록 강요하는 가혹하지만 엄밀한 진실의 무시무시한 상태와 맞닥뜨려 진실을 제대로 보고, 자신에게 가해지는 가혹한 고통과의 싸움을 통해 다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조성훈 184) 가능성을 찾는 대신 죽음을 통해 자신의 온전한 자유를 찾고자 한 것이다.

비록 수전이 마주쳤지만 제대로 맞서지 못했던 가혹한 진실은 독자들과 마주하여 독자인 우리들에게 참된 것을 찾도록 강요한다. 그리하여 수전이 마주친 여성 억압적 현실을 해석하라고 독자들에게 강요하며, 수전이 맞서서 저항하지 못한 여성을 제한하는 구조적 억압을 제대로 보라고 촉구한다. 「19호실로」에서 수전이 구조적 억압에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한 예에서 드러나듯 구조적 억압은 물화된 형태로 일상적 삶에 깊이 뿌리박고 있어서 대항하기가 쉽지 않다. 다시 말해 구조적 억압은 “수많은 개인들이 매일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을 통해 유지되고 재생산되며(Young, *Justice* 41-2), 이들이 행한 사회적 행위가 축적된 효과가 물화된 형태로 나타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Young, *Responsibility* 157). 그리고 이러한 물화는 특정한 사회관계에서 나온 인간 행위의 산물임에도 마치 자연스러운 사물이나 자연적인 힘인 양 받아들여지므로 행위자들이 부정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Young, *Responsibility* 154-57). 따라서 수전의 남편 매슈도 자신이 남성 중심의 “억압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깨닫지 못한다”(Young, *Justice* 42). 매슈는 아내의 노동력을 전유하는 불평등한 결혼 계약을 통해(Delphy 94-5) 수전의 노동에 의존하지만 그러한 의존이 가시화 되지 않는 성별 노동 분업을 조장하는 체제에서 “젠더 착취”(Young, *Justice* 51)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수전의 노동은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한 채 그녀의 에너지와 힘이 남성인 매슈에게 이익이 되도록 사용되며, 그가 보다 중요하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성적, 정서적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모되고 만다(Young, *Justice* 51). 이처럼 매슈는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적, 문화적 제도 속에서 여성을 착취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일에 자신도 의식하지 못

하는 사이에 동참하고 있으며, 매슈와 같은 남성들은 남성으로서 특권을 누리며 여성을 억압하는 “구조적 제약을 생산함으로써 간접적이고 집단적으로, 그리고 누적적으로 부정의에 기여”(Young, *Responsibility* 96)하고, 그들의 “일상적 사회적 관습, 관행과 습관”을 통해 “부정의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데 기여”(Young, *Responsibility* 70)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여성에 대한 부정의를 극복하려면 “사회과정의 참여자이자 책임을 동반하는 사회의 구성원”(Young, *Responsibility* 167)으로서 시민의 연대와 책임의식이 필요할 것이다. 죄와 책임을 구분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논의를 빌어 부정의에 대한 책임의 의미를 정교화한 아이리스 영은 부정의를 극복하는데 정치적 책임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정의를 위한 책임』(*Responsibility for Justice*)에서 영은 법적 책임과 구분하여 구조적 부정의와 관련된 “책임에 관한 사회적 연결 모델”이라는 “대안적 개념”을 제안하고, 이 모델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일부 불공평한 결과를 가져온 구조적 과정에 영향을 미친 모든 사람들이 부정의에 책임이 있다는 뜻”이라고 말한다(96). 따라서 영은 “구조적인 부정의와 관련된 책임은 부정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기여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13). 따라서 「19호실로」의 매슈와 같은 남성도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수전의 억압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여성에 대한 부정의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하지만 구조적 억압이 일상적 삶에서 자연스럽게 은폐되어 있을 때 이러한 책임감을 느끼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이 주장하듯 “우리 대부분은 부정의를 교정하는 것은 특별히 우리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국가나 정부에 기대고자 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정부가 제도를 교정하는데 효율적일 수 있겠지만, “정의를 추구하는 국가의 힘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것이다(Young, *Responsibility* 166; 169). 국가나 정부가 자본의 논리에 의해 좌우된다면 그것을 제지하고 더 나은 변화를 이끌어 나가야 할 사람이 바로 일반 시민이기 때문이다. 사회 과정의 참여자이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은 「19호실로」에서 수전이 경험한 여성을 억압하고 절망하게 하는 정의롭지 못한 구조를 바꾸기 위한 행동에 함께 참여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III

20세기 중반 「19호실로」의 수전이 겪었던 구조적 부정의는 많은 페미니스트 학자들이나 사회 운동가들의 노력으로 사회적으로 쟁점화 되었고, 그리하여 여성 억압적 구조적 부정의를 쇄신하는 일은 얼마간 발전을 보였다. 그러나 아직도 여성들은 자신의 역량을 계발하고 발휘하는데 많은 제한을 겪고 있다. 오늘날 비록 여성들이 공적 세계에 다양하게 참여 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무임금 가사노동을 강요하는 “제도화된 종속관계”를 통해 “무시의 대상”이 되고 “제도화된 문화적 가치 유형들로 인해서” “사회생활에 동료로서 참여할 수 없는” 부정의를 경험한다(Fraser, “Social Justice” 29). 그리고 무제한 축적을 위해 달려가는 신자유주의 시대의 자본주의는 점점 더 시장 중심적이 되어감으로써, 가정의 안과 밖에서 재생산을 위한 사회적 실천이나 복지제도를 자본의 이윤을 갹아먹는 지속적 위협으로 생각하고 그 비용을 줄이려는 금융 동인과 그런 노동을 저평가하려는 이데올로기적 동인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Arruzza et al. 71). 따라서 생산과 사회적 재생산의 상호의존성을 부정하는 무제한의 축적을 향한 자본주의의 충동이 제어되지 않고 사회기반을 공격하게 되면 결국 자본이 의존하는 재생산 과정과 역할 자체를 와해시켜 가내 영역이나 공공 영역 모두의 사회적 역할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자본축적의 동력은 그 자체 가능성의 조건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자기를 잠식해 들어갈 위험이 있는 것이다(Fraser, “Contradictions” 103).

이러한 상황에서 페미니스트들은 2017년과 2018년의 국제 페미니스트 여성파업을 거쳐 2019년 페미니즘 선언에서 “노동의 범주를 임금 노동에만 두는 것을 거부”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 역할로 고정된 무상노동의 필수적인 역할을 가시화”할 것을 주장했다(Arruzza et al. 8). 그리고 2020년 돌봄 연합체(The Care Collective)는 평가 절하되고 있는 돌봄 노동이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지위에 처해 있는 현실을 극복하고 돌봄이 사회적 역량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돌봄을 중심에 놓아 우리의 상호의존성을 인지하고 포용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3-5). 여성에 대한 부정의를 종식시키기 위해

이러한 여성 단체들의 선언과 연대 활동이 성과를 이루려면 국가나 정부 차원에서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는 정책을 펼쳐야 할 뿐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더 이상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시민들은 「19호실로」의 수전처럼 구조적 부정의 속에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지 못한 채 분노와 좌절의 상태에서 형벌 같은 고통을 감내하는 여성들을 외면하거나, 이러한 구조적 부정을 생산하는 과정에 기여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될 것이다.

Notes

- 1) 앞으로 본문에서 「19호실로」의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로 표시한다.
- 2) 프리단(Betty Friedan)은 1950, 60년대의 여성들이 이름 붙일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러한 여성들의 핵심적인 문제가 여성성의 신화 때문에 여성의 정체성과 성장이 영속적으로 방해 받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프리단은 당대의 문화구조가 여성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 발전시키려는 기본적인 욕구를 인정하거나 충족시키지 못하게 막고 있다고 주장한다(69).

인용문헌

- 강영돈. 「『19호실로』와 『자기만의 방』에서 나타난 양성적 대립과 소통의 부재」. 『인문사회21』, 10집 4호, 2019, 1163-1172쪽.
- 김초연. 「여성 성장소설로서의 『각성』과 『19호실로』: 비극적 결말을 통해 보는 기혼 여성의 성장」. 『영미문학페미니즘』, 27권 2호, 2019, 27-61쪽.
- 박선화. 「장소와 무장소: 『19호실로』와 『어둠이 오기 전의 여름』에서의 방의 서사」. 『현대영미소설』, 19권 1호, 2012, 27-56쪽.
- 유제분. 「돌봄/가사노동의 소외와 여성 공간-도리스 레싱의 19호실과 제임스 조이스의 이블린」. 『영어영문학』, 54권 2호, 2008, 169-88쪽.
- 조성훈. 『들뢰즈의 잠재론: 소멸과 창조의 형이상학』. 갈무리, 2010.
- 최선령. 「지성의 실패와 자기만의 방: 레싱의 『19호실로』에 관하여」. 『신영어영문학』, 45권, 2010, 169-83쪽.
- Arruzza, Cinizia, et al. *Feminism for the 99 Percent: A Manifesto*. Verso, 2019.
- Brown, Kevin. "Lacking a Story of Her Own: Susan Rawlings and Narrative in Doris Lessing's "To Room Nineteen"." *Doris Lessing Studies*, vol. 33, 2015, pp. 9-13.
- Budhos, Shirley. *The Theme of Enclosure in Selected Works of Doris Lessing*. Whitson, 1987.
- Davis, Angela. *Modern Motherhood: Women and Family in England, c. 1945-2000*. Manchester UP, 2012.
- Deleuze, Gilles. *Proust and Signs: The Complete Text*. Translated by Richard Howard, The Athlone P, 2000.
- Delphy, Christine. *Close to Home: A Materialist Analysis of Women's Oppression*. Translated by Diana Leonard, U of Massachusetts P, 1984.
- Fraser, Nancy. "Contradictions of Capital and Care." *NLR*, vol. 100, July/Aug 2016,

pp. 99-117.

----. *Fortunes of Feminism: From State-Managed Capitalism to Neoliberal Crisis*. Verso, 2013.

----. “Rethinking Recognition: Overcoming Displacement and Reification in Cultural Politics.” *Adding Insult to Injury*, edited by Kevin Olson, Verso, 2008, pp. 129-41.

----. “Social Justice in the Age of Identity Politics: Redistribution, Recognition, and Participation.” Translated by Joel Golb, et al., *Redistribution or Recognition?: A Political-Philosophical Exchange*, edited by Nancy Fraser and Axel Honneth, Verso, 2003, pp. 7-109.

Friedan, Betty. *The Feminine Mystique*. A Dell Book, 1974.

Halisky, Linda H. “Redeeming the Irrational: The Inexplicable Heroines of “A Sorrowful Woman” and “To Room Nineteen.”” *Studies in Short Fiction*, vol. 27, no. 1, winter 1990, pp. 45-54.

Held, Virginia.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Oxford UP, 2006.

Hong, Seung Hyun. “Doris Lessing’s “To Room Nineteen”: A Materialist-Feminist Reading of Woman’s Oppression.” *British and American Fiction*, vol. 16, no. 2, 2009, pp. 247-62.

Hunter, Eva. “Madness in Doris Lessing’s “To Room Nineteen.”” *English Studies in Africa*, vol. 30, no. 2, 1987, pp. 91-104.

Kittay, Eva Feder.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Routledge, 2020.

Lessing, Doris. *The Golden Notebook*. Simon and Schuster, 1962.

----. *The Four-Gated City*. 1969. A Plume Book, 1976.

----. “To Room Nineteen.” *To Room Nineteen: Collected Stories*. Flamingo, 2002,

pp. 352-86.

Lynch, Kathleen, et al. *Affective Equality: Love, Care and Injustice*. Palgrave Macmillan, 2009.

Marsden, Dora. "Bondwomen." *The Freewoman*, vol. 1, no. 1, 1911, pp. 1-2.

Mies, Maria. *The Village and the World: My Life, Our Times*. Spinifex P, 2010.

Pateman, Carole. *The Disorder of Women: Democracy, Feminism and Political Theory*. Stanford UP, 1989.

----. *The Sexual Contract*. Stanford UP, 1988.

Phillips, Anne. *Democracy and Difference*. Polity Press, 1993.

The Care Collective. *The Care Manifesto: The Politics of Interdependence*. Verso, 2020.

Woolf, Virginia. *A Room of One's Own*. 1929. Harcourt, 1989.

Young, Iris Marion. *Justice and the Politics of Difference*. Princeton UP, 1990.

----. *Responsibility for Justice*. Oxford UP, 2011.

Abstract

Doris Lessing's "To Room Nineteen": Injustice to Women through "a Failure in Intelligence"

Kumjoo Kim
Yonsei University

This essay examines that social institutions, cultural patterns, and social relations have contributed to restricting women's lives and pushing women to unequal status in Doris Lessing's "To Room Nineteen." Modern ethics and political theories emphasized the impartial point of view of reason that rational subjects should have, and excluded women from citizenship on the grounds that they did not fit the model of the rational citizen capable of transcending body and sentiment.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oncept of the ideal citizen in modern political ideas, individual citizens were rational, self-sufficient and independent rather than relational and interdependent. Therefore, vulnerability, dependency, interdependency, or caring were not considered ideal civic attributes. As the concept of citizenship rested on independence and political culture intensified gender difference, new and gendered senses of dependency appeared. And dependency was constructed gradually in a feminine sense and was stigmatized, and furthermore, deepened contempt for caring and caring laborers. Women appeared to personify dependency and were denigrated as subordinate status. Thus, modern ethics

and political theories denigrating women as dependents have performed ideological functions of obscuring more emancipatory social relations and reproducing women's oppression.

“To Room Nineteen” begins with the narrator's remark, “a story about a failure in intelligence.” In “To Room Nineteen,” intelligence is related to modern ethical and political theories based on reason and rationality that justify women's subordinate status, and these theories can be considered to have failed in that they led to injustice to women. The narrator refers to this failure as “a failure in intelligence.” This essay argues that the institutions, cultural patterns and social relations based on the ideals of modern civil society have caused the structural and institutionalized oppression and inequality of women, and they have led to injustice that have deprived women of the means and opportunities to exercise and develop their capabilities. In addition, this essay also argues that a political responsibility is needed to overcome this injustice and to practice organizational action for change, and citizens as participants in social processes should share this responsibility.

Key Words: Doris Lessing, “To Room Nineteen,” a Failure in Intelligence, Injustice to Women, Political Responsibility

논문접수일: 2022.09.25

심사완료일: 2022.10.10

게재확정일: 2022.10.17

이름: 김금주

소속: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전문연구원

이메일: kumjyonsei@hanmail.net

